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서 번식시킴

(목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사도행전의 연속 —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삶

성경: 행 28:31, 요 5:17, 행 1:14, 6:7, 11:23-24, 19:20, 26:18

- I. 사도행전은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제시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나타남인 교회를 확산하고 건축하기 위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었다 — 행 1:8, 14, 2:14상, 4:10-20, 31-32, 5:20, 38-39, 13:1-4, 26:16-19, 28:31.
- A.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외적인 인간 역사 속에 있는 내재적인 신성한 역사를 제시해 주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 행 2:17-21, 율 1:1-4, 2:28-32.
- B.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영원의 시대로부터 계속 나아가서’(미 5:2) 시간의 다리를 건너 영원 미래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인데(시 90:2),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단체적인 나타남과 완전한 영광스럽게 됨을 위해 모든 민족들이 사모하는 분(학 2:7)으로서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되시기 위한 것이다.
- C. 요엘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시고 복합되신 영의 쏟아부어짐에 대해 말하는데, 이 영은 오순절날에 쏟아부어지셨다. 이 영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위한,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의 실재화이시다 — 율 2:28-29, 행 2:1-4, 16-21, 딤페전 3:15-16.
- II. 사도행전은 결말이 없는 책인데, 이는 이 책이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로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행 28:31.
- A. 주님은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요 5:17)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일해 오셨고, 주님 또한 일하고 계심을 의미한다.
- B.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록이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하나님의 많은 그릇들이 그분의 일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그분의 일은 계속되고 있으며 멈추지 않았다.
- C. 그분의 일은 왕국이 임할 때까지, 심지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진하시며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한 이것을 믿는다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심지어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도 그분의 노예들은 제사장들로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 계 22:3, 비교 행 13:36상.
- D.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번식과 번성과 확산을 위해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긴 기간 동안 계속될 필요가 있었다.
- E. 그리스도의 증가와 번식과 번성과 확산을 위한 이러한 복음 전파의 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많은 아들들(롬 8:29)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많은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고 그분의 몸(롬 12:5)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수행하

고 그분의 영원한 뜻을 이룬다. 이것은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스물한 권의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에서 상세하게 계시된다.

- F. 하나님은 단체적이며 빛나는 한 그릇, 곧 증거를 지닌 한 그릇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인식하는 데로 이끌려야 하고 몸의 생활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쓸모가 없고 결코 그분의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 — 롬 12:1-5, 고전 12:12, 계 1:10-12.
- G. 심지어 이기는 이들의 증거가 유지되는 것도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다. 이기는 이들은 그 일을 하며, 그 유익은 교회 전체가 받는다 — 계 12:5-9, 2:7, 11, 17, 26-28, 3:3, 5, 12, 20-21.
- H. 이기는 이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있지 않다. 그들은 교회의 터 위에 서 있으며,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은 교회 전체가 온전하게 되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다. 심지어 이기는 이들의 승리도 단체적인 승리이다 — 비교 빌 1:19.

III.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연속으로서 여전히 확장되고 변성하고 있다 — 행 6:7, 12:24, 19:20.

- A.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확장되다(혹은 ‘자라다’—원문 직역)’라는 말은 생명의 성장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에 씨로서 뿌려져 자라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시기 위한 것, 즉 하나님께서 자라시기 위한 것이다 — 막 4:14, 골 2:19.
- B.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변성하다’라는 말은 인수 면에서 그리스도의 증가를 가리킨다. 사실상 제자들의 변성은 말씀의 확장에 달려 있다.
- C. 새로운 제자들이 ‘주님께 더해져’ 그리스도의 일부분,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된다 — 행 5:14, 11:24, 롬 15:16.
- D. 우리는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격려해야 한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님께 신실하고, 주님을 굳게 붙잡으며, 주님과 의 긴밀한 교통 가운데 사는 것이다 — 행 11:23.

IV. 사도행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주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말함으로써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한다.

- A. 하나님의 신약 회년에 관한 요엘서의 예언과 그 성취에는 두 방면이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분의 영을 쏟아부어 주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에 도달하시고 모든 것을 획득하신 승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 행 2:16-18, 21, 율 2:28-29, 32상.
 - 1. 인간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성한 역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역사이다 — 롬 10:12-13, 엡 3:8, 19, 1:22-23.
 - 2.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황금과 같은 신성한 역사 안에 우리 자신을 계속 있게 한다. 이 역사는 에노스로부터 시작하여(창 4:26), 구약과 신약을 거쳐 계속되며(욥 12:4, 창 12:8, 26:25, 신 4:7, 삿 15:18, 삼상 12:18, 시 116:4, 13, 17, 80:18, 88:9, 왕상 18:24, 사 12:4, 애 3:55, 57, 시 99:6, 사 55:6, 은 1:6, 왕하 5:11, 사 41:25, 행 2:21, 7:59, 9:14, 21, 22:16, 롬 10:12-13, 고전 1:2, 딤후 2:22), 성경에 있는 마지막 기

도로 끝을 맺는다(계 22:20).

- B.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인간 역사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겪는다. 그 이름, 곧 사람은 멸시했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멸시를 받는 것은 참된 영예이다 — 행 4:18-20, 29-31, 5:41-42, 9:13-16, 고후 6:4, 11:23, 골 1:24-25.
- C.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함으로써 인간 역사 안에서 신성한 역사를 수행한다. 이 이름은 주님의 인격과 일에 있어서 그분의 존재 전체를 표현한다 — 행 9:27, 빌 2:9-11, 살전 2:2, 고후 4:5.

V. 사도행전은 한 몸으로서 살고 움직이고 행동함으로써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몸을 위해서 한다.

- A. 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살고 행동하고 행하고 일하시는데, 이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 자신을 그들 안에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다 — 요 12:24.
- B.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머리의 그림을 제시해 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몸을 보여 준다. 사도행전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 곧 그분의 재생산과 복사판인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 행 1:14, 2:14상, 42, 9:4-5, 28:13-15.

VI. 사도행전은 그들 자신을 거절하고 또 다른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삶으로써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한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단체적인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 A. 사도행전 5장 20절에 나오는 ‘이 생명’이 가리키는 생명은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와 헐박과 투옥을 이겨 낸 생명이며, 베드로가 전파하고 공급하고 살아 낸 신성한 생명이다. 베드로의 생활과 일을 통하여 신성한 생명이 그의 상황에서 매우 실지적이고도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까지도 그것을 보고 지적했다.
- B. 바울은 그의 영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예수님의 영(그의 사람의 영과 한 영으로 연합되신 신성하신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살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는 회당 안에서(실지적인 지성소인 그의 영 안에서) 그리고 진영(종교의 인간적인 조직) 밖에서 살았다 — 행 16:6-7, 17:16, 19:21, 롬 8:16, 딤후 4:22, 고전 6:17, 롬 1:9, 빌 3:3, 히 6:19-20, 13:13.
- C.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간 생명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의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열려 있는 그릇들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행 9:15, 고후 4:7, 롬 9:21, 23, 비교 왕하 4:1-6.

VII. 사도행전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함으로써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한다. 이것은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 안에서 사는 것이다 — 행 6:4, 히 7:25, 8:1-2.

- A. 기도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반향이 된다.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며, 사람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 기도를 의지한다 — 행 9:11, 13:1-4, 골 3:1-3, 4:2, 엡 6:18, 단 6:10, 9:2-3, 고전 2:13, 고후 3:16.

- B. 우리는 말씀의 사역에 의해 하늘에 속한 생명과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으로 나누어 준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부양(扶養)받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하늘에 속한 생활로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 롬 15:16, 비교 사 50:4-5.

VIII. 사도행전은 시편 68편에서 보여 주는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한다. 시편 68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이시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활동들의 실재이심을 보여 준다 — 시 68:1, 24.

- A. 우리는 생명을 분배하시고 쏟아부어지신 영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매일 누려야 한다 — 시 68:11-13, 행 2:46-47, 5:42, 16:5, 20:31, 28:30-31.

- B.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운송과 확산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바닷가’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오순절날에 모두가 갈릴리 사람인 적어도 백이십 척의 복음의 ‘선박’들이 복음을 확산하기 위하여 ‘바닷가’에서 출항하였다 — 시 68:27, 창 49:13, 행 2:7, 13:31.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사도행전의 계속

성경은 전부 육십육 권이다. 이 육십육 권 안에 많은 책이 있다. 보통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으면, 당신은 한 권의 책의 내용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다. 당신이 끝까지 읽어 가면 당연히 그 내용이 결말에 이르렀음을 알게 된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다. 당신이 28장까지 읽으면 당연히 그 내용이 끝났음을 알게 된다. 당신이 또한 로마서 16장을 읽으면 그 내용이 끝났음을 알게 되고,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으면 역시 그 내용이 끝났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그 내용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한 권의 책이 있다. 나머지 육십오 권은 모두 그 내용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한 권의 책이 있다. 그 한 권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당신은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읽고서 이상함을 느끼게 된다. 왜 이렇게 중단되었을까? 당신은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읽으면 이 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이 책이 아직 결말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사도행전은 결말이 없는 책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세기의 사도들의 행전은 이미 끝났겠지만, 사도행전 전체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오늘까지도 여러분 모두는 여전히 사도행전을 보고 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요 5:17)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일해 오셨고, 주님 또한 일하고 계심을 의미한다.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나 요한의 사역을 기록한 것도 아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는 일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이 사도행전 28장에 이르러서 중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에는 결말이 없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하나님의 많은 그릇들이 그분의 일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그분의 일은 계속되고 있으며 멈추지 않았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 년간 일한 후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바울의 일생을 볼 때 그는 로마에서 살았고 후에 그곳에서 순교했지만, 이러한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다.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이 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도행전이 이미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증거는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다. 29장으로 끝날 수 없고, 30장으로 끝날 수 없으며, 100장으로도 그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만일 누군가가 더 기록하기 원한다면, 새로운 것들이 언제든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28장 이후를 더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28장 이후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세기의 일이 결코 절정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사천 년의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일해 오셨다. 만일 사도행전 28장이 절정에 이른 것이라면,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간 것이 되고 후퇴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바울 시대에 절정에 이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마르틴 루터 때에 하나님의 일이 절정에 이른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아니다. 1세기가 하나님의 일의 결말이 아니고, 16세기가 하나님의 일의 끝이 아니며, 심지어 지난 세기도 하나님의 일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왕국이 올 때까지, 심지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전진하시고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종종 하나의 잘못을 범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처한 때가 교회가 가장 나쁜 상황에 있는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 때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고, 요한 웨슬리 때에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틴 루터 때에도 매우 좋았고, 요한 웨슬리 때에도 매우 좋았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들이 처한 때가 좋았다고 말한다. 앞으로 오십 년이 더 지나면, 사람들은 우리가 처했던 때가 좋았던 때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멈출까 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실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매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고, 어디까지 해야 할지 알고 계신다. 매년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시고 계속 전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전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진하실 때 항상 어떤 그릇들을 찾으신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어떤 그릇들을 찾으셨다. 마르틴 루터 때에도 하나님은 한 그릇을 찾으셨고, 요한 웨슬리 때에도 하나님은 한 그릇을 찾으셨다. 영적 부흥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그릇들을 찾으셨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그릇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사람이 계속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겠는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하셨던 동일한 그릇을 오늘날에도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그릇은 교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얻기 원하시는 그릇은 개인적인 그릇이 아니라 단체적인 그릇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얻기 원하시는 그릇이 단체적인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몸의 생명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데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쓸모없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이룰 수 없게 된다.

요한계시록 1장은 교회를 금등잔대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가 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등잔대라고 말씀하신다. 교회가 금에 불과하다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금등잔대라고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금등잔대는 빛을 발하고 밝게 비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회가 빛을 발하는 그릇, 증거를 지닌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태초에 교회가 등잔대가 되도록 정하셨다. 어떤 개인이 아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등잔대이다. 단지 교회가 금인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빛을 비추고 하나님을 위한 증거를 지녀야만 교회가 등잔대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 존재한다. 금이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며, 등잔대가 아닌 것도 교회가 아니다. 안에 생명이 없는 것도 교회가 아니며, 안에 증거가 없는 것도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시기를 보아야 하며,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교회가 금등잔대가 될 수 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 전진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그릇을 얻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하나님의 그릇은 처음에 갖기로 정하셨던 바로 그 그릇이다. 그 그릇은 바로 교회이며 어떤 한 개인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중에서 이기는 이들이 나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이기는 이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기는 이들의 증거도 단체 전체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개개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기는 이들은 그들 자신을 비범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한쪽에 쳐다 두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기는 이들은 교회 전체를 위해 일한다. 그들은 그 일을 하며, 그 유익은 온 교회가 얻는다. 이기는 이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있지 않다. 그들은 교회의 터 위에 서 있으며,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은 온 교회를 온전하게 되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터 위에 서 있으며, 교회를 위해 그 위치에 계속 서 있다. 심지어 이기는 이들의 승리도 단체적인 승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단체적인 그릇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생활을 하기를 배워야 한다. 몸의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타고난 생명을 거절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처리받아야 하며, 심판받아야 한다.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고, 또한 교통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워치만 니 전집, 37권, 일반 메시지(1), 20장)*